

Hi Seoul, Hi World!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책임지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서울 대치동 SETEC(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안에 위치한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서울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1998년 설립된 서울시 산하의 재단법인이며 우수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하이 서울 브랜드 사업을 비롯해 패션 디자인, 만화 애니메이션, 창업 보육 및 교육, 전시 컨벤션, 해외 통상 및 투자 유치, 관광 마케팅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중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사업을 소개한다.

▶▶▶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케팅 지원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원장 심일보)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1998년 설립된 서울시 산하 산업경제 지원 기관이다. SBA의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하이 서울(Hi Seoul)' 공동 브랜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우수한 기술과 상품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홍보 및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 고유 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우수 기업들에 서울시 슬로건인 '하이 서울(Hi Seoul)'을 공동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업에 대해 종합 마케팅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4년 출범했다.

공동 브랜드로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마케팅 지원을 함으로써 참여 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공동 브랜드가 국내 용인 데 비해 '하이 서울'은 수출 주도형 브랜드로 육성해 참여 업체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심일보 원장은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공동 브랜드 사업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반해 '하이 서울'은 서울시와 SBA의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에 힘입어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업은 해마다 참여 기업에 대한 모집 공고를 한 뒤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평가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 서울 소재 기업으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전문 기업 및 디자인 기술 등에서 혁신성이 강력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다.



선정된 업체에는 자사 제품에 서울시 우수 기업 브랜드인 '하이 서울' 브랜드를 부착해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또 기업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한다.

특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연 2회 이상 해외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박람회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중국 베이징 광저우 텐진과 베트남, 인도 등에서 '하이 서울' 브랜드 해외 로드쇼를 개최해 좋은 수출 상담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국내의 홍보 또한 주요 지원 사항이다. 해외로는 한류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CNN과 STAR TV 등의 현지 유력 매체를 통해 '하이 서울' 브랜드를 홍보한 바 있다. 아울러 SETEC 전시장 1층에 56㎡ 규모의 홍보 체험관인 <하이서울브랜드플라자>를 운영해 소비자와 바이어가 하이 서울 브랜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하이 서울' 브랜드로 중소기업에 날개를 달다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The Excellent Company Brand of Seoul

2004년 시작된 '하이 서울' 브랜드 사업은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참여 업체는 첫 해 11개사에서 2005년 30개사, 2006년 38개사, 지난해 45개사에서 올해는 60개사로 늘었다. 참여기업의 매출은 2004년 95억 원에서 2005년 546억 원, 2006년에는 1300억 원, 2007년에는 2675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서울지역 우수 중소기업 공동 상표인 '하이 서울' 브랜드를 단 제품들의 매출 및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브랜드 파워도 커지고 있다.

금년 '하이 서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60개사는 기술 및 디자인 등에서 혁신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지향 기업으로, 내년 1년 동안 '하이 서울' 브랜드를 자사 제품에 부착할 수 있고, 홍보 및 국내외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매출도 3600억 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하이 서울' 브랜드 사업은 이업종 교류 차원에서의 단순한 업무 협력을 뛰어넘어 사업 참여 기업 간의 자발적인 공동 마케팅을 통해 강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 간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는 공동 제품 개발, 공동 애프터서비스 망 구축, 공동 유통망 활용, 시장 정보 교류, 공동 홍보 등이 있다. 참여 기업 대표자들로 구성된 하이서울컴퍼니 대표자 협의회가 매달 개최되고 있어 공동 사업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참가업체 대표들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경쟁력을 벤치마킹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심일보 원장은 "철저한 사전 조사부터 현지 지원, 사후 관리까지 3단계로 지원하는 '하이 서울 프리미엄 해외통상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참여 기업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2008년 역점사업은 디자인 컨설팅

SBA는 2008년도 역점사업으로서 디자인전략 및 디자인개발 컨설팅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제품과 로고 디자인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2008년에도 해외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하이 서울' 브랜드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SBA는 200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한류지역을 중심으로 CNN을 통해 해외홍보를 실시한 이후, 금년에도 '하이 서울' 브랜드 홍보대사(베이비복스 리브 및 갬블러 크루)를 활용하여 니케이 비즈니스(일본), STAR TV(중국, 인도 등), H TV(베트남)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마케팅 지원 측면에서도 <하이서울브랜드플라자> 운영 및 유통업체 협력사업 지원 등의 국내 마케팅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참여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신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무역의 모든 것 SBA에 물어보세요!



SBA는 인터넷무역지원을 위해 매년 130개 내외의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국내 최대 e무역상사와 협력하여 다방면의 바이어 알선을 제공해 왔다.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은 인터넷무역 B2B포털 사이트 (www.hiseoultrade.com)를 기반으로 산자부 지정 e무역상사인 EC21, ECPLAZA와의 공조를 통해 서울소재 13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카탈로그 제작, 바이어알선 및 전자무역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수출홍보지 광고 및 KOMPASS 바이어DB 제공 등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터넷 전용 커뮤니티(comm.sba.seoul.kr/etrade)를 개설해 SBA와 기업 간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기업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2007년 SBA 인터넷무역환경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및 해외마케팅을 통해 1,8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이 창출되어 유관 중소기업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적극 지원

중소기업 해외 진출 프로그램인 하이서울 3단계 해외통상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이 서울' 브랜드사업에 2008년 새로이 선정된 엠피미디어(대표 김영학)가 최근 대만의 PRO-DIVES. ENTERPRISE社(대표 Chiang En)와 디지털사진인화기인 Auto Photo 제품과 인화지에 대해 1차적으로 176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디지털사진인화기를 개발·공급하고 있는 엠피미디어는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아 2008년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하이서울' 브랜드사업 참여 이전인 2005년부터 SBA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에 6회 이상 꾸준히 참가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한 결과 이같은 값진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엠피미디어는 홍콩전자전에서 만난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MIC社 및 싱가포르 ONE IPTV社도 계약을 추진, 324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거둔 바 있다.